

브라질 가는 기성용 부친 기영옥 광주축구협회장



기성용이 아버지 기영옥 광주축구협회장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오른쪽은 어머니 남영숙씨. <광주일보 자료사진>

# “개인보다 조직력 팀을 위해 뛰어라”

“한국, 전력적으로 열세  
수비 안정후 측면 노려야  
경험 있는 아들 책임 막중  
부담 떨치고 제몫 해주길”

“개인이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팀을  
생각하라.”

기영옥(58) 광주축구협회장에게는 ‘격정반 기대반’의 브라질 행이다. 기 회장은 30여년의 지도자생활을 통해 고희수, 윤정환, 김영광 등을 키워낸 ‘호남 축구의 대부’다. 한국대표팀의 ‘든든한 허리’ 기성용(25·선덜랜드)의 아버지로도 유명하다.

15일 브라질로 향한 기 회장은 18일 오전 7시 러시아전을 시작으로 알제리전(23일 새벽 4시), 벨기에전(27일 새벽 5시)을 지켜보고 돌아올 예정이다. 자랑스런 후배들을 응원하기 위해 ‘쌈바축구’의 고장으로 향하는 기 회장에게는 걱정이 앞선다.

기 회장은 “냉정하게 말하면 대한민국이 열세다. 선수들이 1대1로 해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다. 개인플레이를 해서는 안 된다. 전체적으로 도우면서 조직력으로 상대를 공략해야 한다”며 “현재 후배들에게는 일반적인 얘기밖에 해줄 수 없을 것 같다. 더 이상 어떤 것을 준비할 수도 없고 이제는 컨디션 싸움이다. 컨디션 조절을 잘해서 최고의 경기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성적을 위한 화두는 ‘수비’, 16강행의 고비이자 기회인 러시아전은 ‘측면’이 핵심이라는 평가다.

기 회장은 “수비를 우선 생각해야 한다. 우승을 하는 팀, 상위 클래스 팀을 보면 수비가 안정돼 있다는 것이 공통적이다. 조직적으로 수비를 하다가 역습에 의한 득점으로 기여한다는 생각이다”며 “러시아는 조직력과 기동성이 좋은 팀이다. 그러다 보니 중앙 플레이로 공을 넣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측면이 열려져야 한다. 중앙으로만 침투하는 경우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다. 측면에서 가운데로 들어가는 루트를 통해 러시아를 공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축구인으로서 4년을 기다린 월드컵이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슴 졸이고 지켜보는 월드컵이기도 하다. 4년 전 대표팀의 막내로 남아공월드컵 무대를 밟았던 아들이 팀을 이끌어 가야 하는 막중한 위치에 서서 두 번째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 회장은 “성용이에게는 두 번째 월드컵이다. 경험도 해왔으니까 지난 월드컵 보다 더 좋은 플레이를 해야 하는데 무릎이 좋지 않아서 아버지로서 걱정이 된다. 그래도 A매치 경력으로 팀에 3~4번째 짝은 선수다. 팀을 이끌어 가야하는 위치에 있다. 부담감을 떨치고 당당히 좋은 활약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애절한 마음을 전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62개국 수소에너지 석학들 광주 온다

세계수소에너지 대회 오늘 DJ센터서 개막

30개 기업 등 초청 석유 대체 연료 정보 교류

자동차 등 차세대 대체에너지 분야의 선두주자인 수소에너지의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세계수소에너지대회가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를 꿈꾸는 광주에서 열린다.

1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해 20일까지 5일간 개최되는 ‘세계수소에너지대회 2014’는 62개국 2000여명의 수소에너지 분야 석학들과 30개의 기업·단체·연구소들이 모여 최신 연구 경향과 기술 정보 등을 교환한다. 또 국내·외 수소에너지 관련 기관 등이 초청돼 수소산업 육

성과 인프라 확대를 위한 비즈니스 설명회, 상담회, 기업전시회 등도 열린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수소충전소 건설사업 등 수소에너지 사업과 각 나라의 수소 관련 정책 설명회가 마련돼 실질적인 비즈니스 장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상업용 수소연료전지, 수소충전소, 수소자동차, 수소안전 등 관련된 세계 전문가들이 기초연설을 맡아 수소에너지에 대한 최신 연구 경향과 발전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 전시회에는 독일의 Linde, 캐나다의 BALLARD, 영국의 AFC Energy를 비롯한 미국, 일본, 프랑스의 세계적 기업과 현대자동차 등 수소에너지 분야 글로벌 선두기업들이 대거 참가한다. 관련 분야 학생들을 위한 Students' Day 등 특별행사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시승 행사 등도 진행된다.

우주에서 가장 가볍고 풍부한 원자인 수소는 석유를 사용하는 모든 엔진과 각종 연료시스템에서 석유를 대신해 사용할 수 있으며,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광주시의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계획과도 맞물려 개발되고 있다.

실제 자동차 62만대의 생산시스템을 구축한 광주는 수소자동차와 전기차 등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그린카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을 통해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구축을 자신하고 있다.

손경중 광주시 전략산업과장은 “광주가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가 되려면 차세대 친환경 대체에너지의 선두주자인 수소 연료전지(자동차)분야를 반드시 (광주에서) 성장시키고,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그 첫 단추로 이번 세계수소에너지 대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로 20회를 맞은 ‘세계수소에너지대회’는 지난 1976년 제1회 대회 개최 후 격년제로 열리고 있다. 이번 대회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며, 아시아에서는 3번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농부의 마음으로...

윤장현 광주시장 당선자가 15일 광주시 광산구 송산동 통일 경작지 들녘에서 열린 ‘2014 통일쌀 모내기 행사’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모를 심고 있다. 윤 당선자는 이날 광주지역 농업·농민에 대한 관심과 정책 마련을 약속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금 값’ 신안 병어

30마리 한상자 39만원 위판

여름철 별미, 병어 가격이 어획량 감소와 중국 수출 증가 탓에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반면, 민어는 지난해에 비해 어획량이 2배가량 늘어 가격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5일 신안수협은 “병어의 하루 위판량은 1500여 상자로 지난해보다 배 이상 급감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이달 초까지는 100여 상자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 이날 현재 30마리 들이 최상품 한 상자 위판가격은 38만~39만원이다. 20마리 한상자는 28만~32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이맘때보다 5만~6만원 정도 높은 가격이라고 신안수협은 설명했다.

이달 초에는 60만원(30마리 들이)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 같은 가격 상승은 지난해에 이어 2년째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병어는 20마리 한 상자에 35만원으로 지난해 2012년보다 15만원가량 올랐다. 올 병어값은 지난해 2012년에 비해 비싸게는 21만원가량 오른 셈이다.

반면, 민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풍어를 맞고 있다. 국립수산물관리 남해수산연구소와 한국수산물관리공단 남해지사가 최근 남해 민어 어획량을 조사한 결과 올해 1~5월 민어 어획량은 287t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어획량 110t과 비교해 2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 광주 영락공원 시설 4~6기 증설

시민 10명중 7명 화장 선호

광주시가 오는 2018년까지 영락공원 화장시설을 4~6기 추가 증설하고, 제3추모관 건립 등 장사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시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2018년 5개년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들의 화장 선호 추세를 따라 화장 시설을 현재 9기(예비 1기 포함)에서 4~6기를 증설해 최대 17기를 운영하고, 제2추모관이 수년 내에 만장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3추모관 건립도 서두르기로 했다. 또 오는 2019년이면 영락공원 내 매장분묘 1만5863기 중 잔여 2684기의 만장이 예상되고 있

나, 매장 비혼호 현상에 따라 추가 조성은 하지 않고 화장시설만 확충할 계획이다.

실제 광주지역 연도별 매장지수는 2000년 1394명에서 2013년 495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화장자 수는 2000년 1299명에서 2013년 9962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수택 광주시 사회복지과장은 “급증하는 화장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화장 시설 등을 현대적·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 시설을 확충해 보다 질 높은 장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민 10명 중 7명 가량은 장례방식으로 ‘화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진표기자 lucky@



#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해당 사항이 하나라도 있다면  
당신은 노안 치료 대상자입니다

노안시력교정수술로  
돋보기, 안경 없는 편한 생활이 가능 합니다.

1566-9988

수술방법

· 라식수술을 하듯 각막을 깎아 초점을 맞춰 노안해결  
· 노화된 수정체를 인공수정체로 바꿔서 백내장과 함께 노안해결  
· 각막에 초점일 미세 인레이를 삽입하여 노안해결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백원광주안과

## 2014학년도 후기 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여러분의 뜻 다 이룬 꿈을 전남대 산업대학원에서 이루 드리겠습니다.  
주요야목: 직장인을 위한 야간 강의 실시(주1-2회, PM7-11)

- 지역의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지식 창조 대학원
  - 정규 공학석사 학위과정을 졸업 후 박사과정 진학 가능
  - 학점이수(36학점)로 석사학위 취득 가능(무 논문제)
  - 본인 업무와 연관된 주제의 학위논문 작성으로 실용적 연구능력 함양과 특허출원 가능
  - 졸업 후 관련분야 연구 및 과제 수행으로 산학인 연구네트워크 구축

-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알찬 교육프로그램 제공
  - 왕의재 공학실계, 공학프로그램 등 혁신적인 교육 과정 도입
  - 원장기자재를 활용한 효과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시

### ■전형일정

구분	일시
입학원서 작성	2014. 06. 10.(화) ~ 2014. 06. 20.(금) 09:00~18:00
입학원서 접수 (제출서류 포함)	우편 2014. 06. 10.(화) ~ 2014. 06. 20.(금) 09:00~18:00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류)
합격	2014. 06. 10.(화) ~ 2014. 06. 20.(금) 09:00~18:00
전형일	2014. 06. 27.(금) 10:00~
합격자 발표	2014. 07. 24.(목) 11:00(산업대학원 홈페이지)

### ■모집학과

건축공학/기계공학/산업공학/재료공학/전기전자컴퓨터공학/토목공학  
화학공학/환경에너지공학/친환경농업학/식품-차산업학/지역환경지원공학

### ■문의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화] 062-530-1607 [팩스] 062-530-1942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gsit.jnu.ac.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앞으로의 금융!  
신협이 함께 합니다.

특보

## 희망가득전환대출

※대상 : 아파트 담보대출

여신전문기관  
(사금융 또는 캐피탈, 파이낸셜, 저축은행 등)

“고금리대출”을  
신협 “저금리대출”로  
전환하세요!

골목상권자영업자  
추천 특례보증대출 연 2.0%~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 - 4474